

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죽상경화성 신동맥 협착의 자연 경과

인제의대 상계백병원 내과,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*

김상현 · 김수희* · 이은경* · 장재원* · 김순배* · 이상구* · 박정식*

목적 : 죽상경화성 신동맥협착은 말기 신부전의 한 원인이며, 최근의 보고에서 그 유병률이 증가되어 왔다. 그러나 국내 보고에서 죽상경화성 신동맥협착의 신 기능 소실 정도를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. 이에 연구자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동맥 협착의 정도에 따른 신기능의 소실 정도와 그 임상적 특징들을 분석하였다.

방법 : 1995년 1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574명 중 추적이 가능했던 324명의 creatinine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대상군을 신협착의 정도에 따라 I군: 신동맥 협착이 없는 군, II군: 50% 미만의 협착이 있는 군, III군: 50% 이상의 협착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에서 creatinine의 변화를 조사하였고, 그에 따른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.

결과 : 외래 추적관찰 평균 기간은 7.0 ± 1.8 년이었고, 연령은 64.8 ± 9.5 세였다. 324명 중 I군: 211명, II군: 86명, III군: 27명이었다. 평균 7년의 추적 기간 뒤의 creatinine의 변화는 I군: $0.99 \pm 0.6 \rightarrow 1.0 \pm 0.4$ mg/dL, II군: $0.98 \pm 0.2 \rightarrow 1.1 \pm 0.5$ mg/dL, III군 $1.0 \pm 0.2 \rightarrow 1.4 \pm 1.0$ mg/dL이었다 ($p < 0.01$).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당시의 creatinine에 비해 50% 이상 상승한 percentage (%)는 I군: 3.3% (7/211), II군: 9.3% (8/86), III군: 33.3% (9/27)이었다 ($p < 0.001$). 단변수 회귀 분석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당시의 creatinine보다 50% 이상 creatinine상승을 보인 위험인자는 1)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할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($p < 0.05$), 2) 당뇨병 ($p < 0.001$), 고혈압 ($p < 0.01$), 말초혈관질환 ($p < 0.001$)의 병력, 3) 고혈압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($p < 0.05$), 4) 관상동맥 협착의 심한 정도 ($p < 0.05$), 5) 신동맥 협착의 심한 정도 ($p < 0.001$)였다. 다변량 회귀 분석에서 평균 7년의 관찰 기간 동안 50% 이상의 creatinine 상승에 대한 독립 인자는 1) 50% 이상의 신동맥 협착증 (비교 위험도: 12.5, $p < 0.001$), 2) 당뇨병의 병력 (비교 위험도: 4.9, $p < 0.01$)이었다.

결론 :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(50% 이상의) 신동맥 협착군에서 다른 군보다 신기능의 소실정도가 빨랐다. 따라서 50% 이상의 신동맥협착군에서 정기적인 신기능의 추적과 신기능 소실에 따른 적절한 중재적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